

野 “尹 옥중 정치 의혹” … 與 “검찰 수사 지켜보아야”

국회 운영위 ‘명태군 특검’ 공방…중앙지검 이송 놓고도 의견 분분
국힘 “국정 관여 프레임 과도”…민주 “대통령실·경호처 질의 필요”

여야가 명태군 특검법 도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검찰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배후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윤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지적하며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가 여전히 우회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의사결정과 집행이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장원지검이 명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것에 대해서도 “꼬리 자르기를 위해 사건을 당겨온 것이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며 “법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배후에는 여전히 대통령실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이 명씨가 2022년 7월 김 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을 거쳐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노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는 시간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라고 국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참모진과의 면회를 통해 국정에 개입하고, 명 씨 사건의 이송 배경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론하더라도 합리적인 추론이 돼야 한다”며 “대단히 무리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국민의 힘 공천”이라며 “우리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 다 들여다보고 수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발의하면 받겠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쌍방을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회영 전 경기부지사를 면회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비서실장이 접견을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다녀온 걸 가지고 (윤 대통령이 정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과도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주 의원은 특검과 관련해서도 “장원지검에서 중간 수사를 하고 중앙지검에 사건을 보낸 것이 불과 어제”라면서 “특검은 보충성, 예외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공동 선언문에 서명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연합뉴스

“헌정수호 세력 힘 모아 새 정치로 국가 대개혁”

야 5당 ‘내란 종식 원탁회의’ 출범…이재명 “개혁신당도 함께 하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19일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가동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범야권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위기이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들이 헌정 파괴행위에 동조하고 있다. 민주 공화국 헌법 질서라는 국민적 합의를 배신한 행위로 응수할 수 없다”면서 “경제와 민생, 평화, 안보가 무너졌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소수 세력과 싸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도 함께 했으면 한다. 원탁회의는 여전히 열려있다”며 “시민사회도 함께 하길 바라고, 개혁신당을 포함해 헌정질서 수호를 원하는 모든 세력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답대한 연합 정치가 필요하고 국가 대개혁이라는 비전으로 야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대표는 “과거 촛불 광장의 요구를 실현하지 못한 대가로 오늘의 위기를 맞이한 뼈 아픈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정치 혁명 없이는 헌정 파괴 세력의 재집권을 막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정치로 다양한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정치·사회·권력 기관 개혁 등 원탁회의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내란수호 유익결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으겠다.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며 “내란종식을 반드시 완수하고 극우 내란세력이 다시는 집권을 꿈꾸지 못하도록 막겠다.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 극우내란 세력의 잔뿌리까지 찾아 죄를 물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치개혁, 사회개혁, 권력 기관개혁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도출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이 내팽개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동 실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광주·전남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 114명 등록

오는 3월 5일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광주·전남에서 114명이 후보 등록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35개 금고에 총 48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50개 금고에 66명이 등록했다.

후보자는 오는 20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후보자 정보 등은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 통계 시스템(<https://we-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khn@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폐기 되는 물김 비축 방안 마련해야”

최근에 전남에서 버려진 물김을 가공했을 경우 1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폐기 물김의 가격은 37억원이며, 이를 마른김으로 가공시 5배 가량인 183억원 8818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마른김 1속은 물김 4kg으로, 최근 폐기량 5690t을 마른김으로 환산한다면 158만속 이상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 김 산업연구소 설립·운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른김과 조미김의 부가

가치 차이는 1.9 배로, 폐기 물김을 조미김으로 전환했을 경우 356억원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삼석 의원은 “물김 폐기량을 비축해 마른김으로 환산할 경우 5배가량 이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며, 이를 조미김으로 활용했을 경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면서 “기후위기로 해수온이 급변하기 때문에 김 비축에 대해 검토하여 비생산시기인 4-9월에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광훈, 개인정보 무단수집 파악해 조치”

정무위 전체회의…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형사 처벌 대상”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그런(전광훈 목사의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 목사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가입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구독 등을 신청받으면서 차량 운행정보, 휴대전화 사용상태 및 이용내역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다며 개인정보 무단수집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 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체회의에서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다 국내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답시크에 대한 개인정보위원회의 대책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고 위원장은 “이미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데이터가 넘어갔고, 그 데이터가 혹시나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추가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